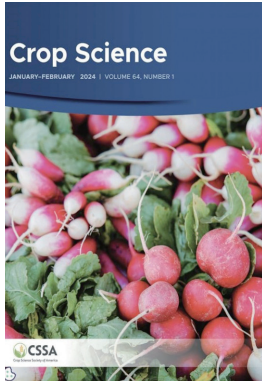


## 가톨릭대, 종자 수출액 1위 '무' 신제품 개발 지평 넓혀



가톨릭대(총장 원종철)는 최근 유히주 의생명과학과 교수(사진 오른쪽) 연구팀이 우리나라 종자 수출액 1위인 무의 신제품 개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교수팀은 2천300여 개의 전 세계 무 유전자원 가운데 선발한 핵심집단(100개)으로부터 전장유전체와 표현형, 유용 성분 정보를 확보했다. 무 정밀육종을 위한 기반을 다진 셈이다.

무는 국내 종자 산업에서 단일 종자 수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작물이다. 세계 종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통적 신제품 육성 방식인 교배육종을 넘어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에 근거한 정밀육종이 필요하다.

유 교수팀은 2010년부터 문정환 명지대 교수팀과 함께 무 연구를 수행했다. 2012년에는 국내 최초로 무 유전체 초안과 정밀 유전지도를 제작했으며, 이어 2016년 조선무 WK10039의 유전 정보를 해독, 표준유전체 Rs1.0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완성도를 대폭 개선한 표준유전체 Rs2.0을 제작했다.

유 교수는 “기후위기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질의 작물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를 활용한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밀육종이 중요해진 것”이라며 “전 세계 무 유전자원을 대표하는 100개 자원의 전장유전체와 표현형, 유용 성분 정보는 다양한 농업적 특성을 연구하는 토대가 되는 것은 물론 고품질 분자마커 개발 등 정밀육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송실대, 2024학년 신입생 입학 축하 '슈키트' 발송

송실대(총장 장범식)가 2024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을 축하하고 대학 생활의 시작을 응원하기 위한 입학 축하 '슈키트(SSU-Kit)'를 발송했다

'슈키트'는 송실대의 영문 약어(SSU)와 키트(Kit)의 합성어로, 새로운 학업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와 대학 생활의 첫걸음을 떼 신입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발송하고 있다. 슈키트는 송실대의 마스코트인 '송송이'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학용품(노트 2종, 키링, 파우치 등)과 텀블러로 구성됐다. 올해는 박스 포장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유저블백에 구성품을 담았다. 환경과 실용성 모두를 고려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 연세대,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4) 개최

연세대(총장 윤동섭)는 3월 14~15일 '제6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4)'을 개최했다.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은 기후 위기, 전쟁, 공중보건, 인권, 교육 등 인류가 직면한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세계적인 권위자들과 석학들이 모여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적 포럼이다.

올해는 'Reboot the SDGs: Reset Our Future'라는 주제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하인츠 피셔 제11대 오스트리아 대통령, 아미나 J. 모하메드 UN 사무부총장 등 전 세계 18개국에서 참석한 91명의 연사와, 36개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과제를 재조명했다.